

朝鮮時代 蓮花臺舞 童妓服飾 考證 및 再現

김 경 실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겸임교수

The Costume of Young Girls Dancers in Yon Wha Dae Moo(蓮花臺舞) of Chosun Dynasty

Kyung-Sil Kim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

(2002. 2. 8 투고)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d the costumes of young girl dancers in Yon wha dae moo(蓮花臺舞: Lotus Stage dance) which were documented on the Ak-hak-guae-bum(樂學軌範: Protocol of music) and the Jin-yeon-eui-guae(進宴儀軌: Archives of Royal Feast).

The fashion of the costumes can be changed into three phases, based mainly on the changes of Hap-rip(蛤笠: silk hat), Dan-eui(丹衣: long jacket) and Sang(裳: apron type skirt). In the first phase the costume consisted of Hap-rip, round neck-line Dan-eui and tiered skirt decorated with pleat and Yu-so(流蘇: decorated cords). In the second phase, it consisted of Hap-rip, v-shape neck-line Dan-eui and skirt without pleat. In the third phase, it consisted of Yeon-wha-gwan(蓮花冠: Lotus shape cap), round neck-line Dan-eui of later era and skirt with pleat and Yu-so.

Yon-wha-dae dance appears to be adopted from Ja-ji-mu(柘枝舞: chinese dance) that originated in West and Central Asia. In both dances, young girl dancers danced mainly jump and spin. The costume of round neck-line Dan-eui seems to have been affected by the fashion in Tang Dynasty when young girls loved to wear Dan-ryung(團領: male coat with round neckline). And it satisfied the need of mobility for the dance which was performed mainly with jump.

Key Words : Yon-wha-dae-moo(蓮花臺舞), West and Central Asia(西域), Ja-ji-mu(柘枝舞),
Costume of young girl dancer(童妓服飾), round neckline coat(團領), Dan-eui(丹衣)

I. 序 論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威儀와 規範을 강조하기 위하여 儀禮를 위한 宮中進宴을 빈번히 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록을 儀軌로 제작하여 보관하였다.

進宴, 進饌禮와 이에 드러지는 궁중무용 및 그 복식에 대한 규범은 宮中進宴, 進饌儀軌와 樂學軌範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上記 문헌에 수록되어 있는 女舞服 중 그 양식이 他 女舞服의 형태와 상이한 蓮花臺舞 동기복식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그간 궁중 진연, 진찬례 복식에 대한 선행연구가¹⁾ 이루어져 왔으나, 연화대무 동기복식은 그 연원 및 형태에 있어 특수성이 관찰되며 또한 의례 복식의 고증과 재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에, 연화대무 동기복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형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蓮花臺舞 童妓의 복식은 대부분 團領에 窄袖衣의 형태이다. 삼국시대에서 고려에 이르는 기간에는 서역으로 부터의 직접 혹은 간접 교역에 따른 문화 및 技藝의 유입이 있었는데,²⁾ 연화대무 동기복식은 이러한 당시의 문화적 흐름 안에서 한반도에 정착된 舞服이며, 실제로 일련의 서역무용과 그에 착용되었던 복식과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화대무 동기복식의 변천을 고찰하고, 연화대무 동기복식 각 부분의 형태 및 연원을 고찰하며, 이러한 구체적인 고찰을 토대로 하여 문헌자료에 제시된 치수를 근거로 실물제작을 시도하고자 한다.

연구 범위는 세종조의 樂學軌範과 현존하는 진연의례 중에서 연화대무 동기복식에 대한 도사나 기록이 있는 英祖20년(1744) 甲子進宴儀軌부터 光武6년(1902) 壬寅進宴儀軌에 나타나는 연화대무 동기복식을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은 조선왕조 宮中進宴儀軌와 樂學軌範, 그리고 正倉院의 유물과 서역복식을 통하여 형태 및 구성의 특징과 연화대무 동기복식의 형태변천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하여 연화대무 동기복식을 제작 하고자 한다.

II. 蓮花臺舞의 史的 考察

蓮花臺舞는 柘枝舞³⁾의 일부로 본래 당대에 서역 石國⁴⁾에서 중국으로 수입된 것이 唐을 거쳐 고려로 들어온 것으로 생각된다.⁵⁾ 이러한 기원을 통해 연화대무는 唐樂呈才로 現傳하고 있는 것이다.⁶⁾ 또한 高麗史의 樂志에 의하면 연화대는 중국의 拓跋魏 즉 後魏에서 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⁷⁾ 唐은 그 건립에 있어 後魏 즉 北魏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며, 소수민족무용을 적극 수용하였던 隨의 무악을 계승⁸⁾, 중국의 무용예술을 크게 발전시켰다.⁹⁾ 隨·唐代에는 자지무와 같은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및 인도의 음악과 무용이 다수 중국에 유입되었고, 역으로도 전파되었으며 중국에 유입된 음악과 무용은 한국과 일본으로 수입되어 상당부분 보존되고 있다¹⁰⁾.

1. 蓮花臺舞의 기원

柘枝舞는 그 내용에 있어 蓮花臺舞와 매우 유사하여 그 연계성을 시사하고 있다. 柘枝舞는 북소리에 맞춰 동녀 2인이 두 송이의 연꽃에 숨어 있다가 연꽃이 갈라지며 몸을 드러낸다. 둘이서 마주보고 추는 춤은 실로 우아하다¹¹⁾. 이러한 자지무의 광경은 高麗史에 기록되어있는 蓮花臺舞 口號에 “連송이에서 변화해 나오는 아름답기도한 자태”라고 서술되어 있는 동기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¹²⁾. 乙卯年 「園行乙卯整理儀軌」蓮花臺舞 呈才圖에는 그 안에 동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있는 큰 연꽃송이 두 개가 엮혀있는 蓮花臺가 배설되어있다¹³⁾. <圖 1> 실제로 두 童妓는 呈才의 순서에 따라 연꽃송이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 마주 대하여 춤을 추게 되어있다¹⁴⁾. 섬서성의 박물관에는 당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비석이 있는데 비석의 양쪽에는 舞人과 덩굴풀 무늬가 조각되어 있다. 이 조각 그림 속에는 긴 소매의 의상을 입고 머리에 리본이 달린 모자를 쓴 두 사람의 무동이 한 발은 연꽃 위를 밟고, 다른 한 발은 앞을 향해 무릎을 구부리고 소매를 위로 치켜올리며 춤추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연꽃에 숨어 있다가 꽃이 열리면 나와서 추는 雙柘枝가 아닌가 한다¹⁵⁾.

그런데 이 비석의 양쪽에 새겨있는 무용수는 그 얼굴모습으로 볼때한쪽은 한인이고 다른 한쪽은 높은 코와 깊숙한 눈을 지닌 서역인이다. 두 사람의 무용적 자세는 완전히 동일하다. 이것은 당대에 한인이나 서역인이 모두 이 무용을 행하였다고 하는 역사적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다¹⁶⁾. 자지무는 원래 혼자서 추는 것이었는데 후에 두사람이 추는 雙柘枝가 나타나 2人舞가 되었다. 이것은 연화대무 동기가 2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다.

2. 蓮花臺舞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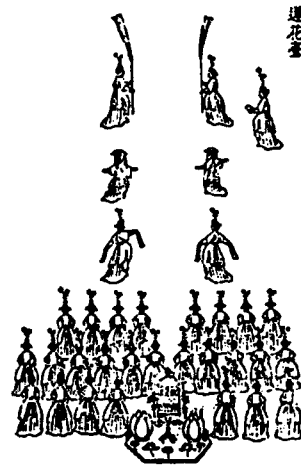
연화대무에 대한 「高麗史」樂志의 기록과 「樂學軌範」의 기록에 나타난 구성은 유사한 형식을 띄고 있다.

연화대무 정제는 악사가 蛤笏 두 개를 받들어 다 展內 한 가운데 좌, 우편에 놓고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죽간자 차비 두사람이 발을 구르며 앞으로 나와 蛤笏의 남쪽에 갈라서고 口號를 한다. 「놀음놀이 화려한 자리 대낮에 열리오니 온갖 즐거움 일시에 오리로다. 연꽃 속으로 어여쁜 아가씨 나와 묘한춤 아리따운 노래 세상에 보기도문 재조로세」 구호가 끝나면 죽간자 차비가 외협의 위치로 물러가고, 악이다시 연주되면 왼편동녀는 땅에 앉고 오른편 동녀는 춤을 추며 합립 남쪽으로 나아간다.

춤이 끝나면 왼편 동녀가 일어나 두 동녀가 함께 군왕의 덕을 칭송하는 창을 하고, 다시 악의 시작에 맞추어 두 동기가 혹은 낮을 혹은 등을 마주하며 跳躍舞를 추며¹⁷⁾ 옆으로 나가 합립을 가지고 일어나 머리에 쓰고 두 소매로 켜다. 악사가 왼편 동녀앞에 나아가 합립끈을 매어주고 우편 동녀에게도 그리한다. 두 동녀가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물러갔다 하며 혹은 낮을 혹은 등을 마주 대고 선회하고 도약하며 춤추기를 마치면 악이 멎는다.¹⁸⁾

<表 1> 연화대무 정제의식의 도표
(樂學軌範 권4 시용당악정제 도표와 절차)

시작 배열 도표	무용 배열 도표
합립 합립	右童女 左童女
죽간자 죽간자	죽간자 죽간자
右童女 左童女	



<圖 1> 연화대무정제도
(園行乙卯整理儀軌 卷首 進饌圖)

Ⅲ. 朝鮮時代 蓮花臺舞 童妓服飾 형태 변천

朝鮮時代에는 상세한 圖寫가 포함된 다양한 종류의 宮中進宴, 進饌儀軌들이 제작되었으며 또한 世宗朝에는 고려로부터 전해온 자료를 수합하여 국가의식에 필요한 樂舞 및 복식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하여 樂學軌範이 편찬되었다

樂學軌範 이후의 蓮花臺舞服飾에 대한 기록인 甲子進宴儀軌에는 기록만이 있고, 을묘년의 園行乙卯整理儀軌에는 복식도만 있는데 그 形制가 서로 유사하며, 團領形 丹衣 이다. 또한 己丑進饌에는 복식도와 기록이 모두 있으며, 기록만 있는 丁丑進饌 그리고 丁亥進饌에 수록되어 있는 복식도 및 기록과 그 刑制가 매우 유사하며, 直領形 丹衣 이다.<表 2> 이 후 壬辰進饌儀軌의 복식도에 의하면 丹衣의 領形이 團領으로 변하고 頭飾도 연꽃

<表 2> 조선시대 연화대무 동기복식 형태의 변천

	冠笠 履屐·結紳	丹衣	裳·練裙	帶
樂學軌範				
乙卯進饌儀軌				
己丑進饌儀軌				
丁丑進饌儀軌				
壬寅進饌儀軌				
壬寅進饌儀軌				

모양의 蓮花冠으로 바뀐다. 이 형태는 壬辰進饌 이후 辛丑進饌, 壬寅進饌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服飾圖와 기록이 함께 남아 있거나, 복식도가 제시되어 있는 진연을 중심으로 고찰하도록 하겠으며, 기록만 남아있는 의례의 기록은 보충자료로 하겠다.

1) 樂學軌範(弘治 6년, 1493)

樂學軌範의 기록은 고려로부터 조선초기에 이르는 蓮花臺舞服飾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자세한 치수가 기록되어 있다.

蛤笠은 가는 대로 망을 만들어 종이를 바르고 겉을 藍絹로 쓴다. 또 紅絹로 만든 頂子 밑에 홍초, 남초로 화통을 붙인다. 4면의 양과 변아도 홍초로 붙이고 모두 금화문을 박는다.¹⁹⁾

황홍장미는 白唐雁의 깃에 녹밀을 물들여, 輪矢로 만들어 붙인다. 羅花는 황홍이 각 하나씩이다. 流蘇와 結紳은 금화문을 금박한 홍라로 만든다.²⁰⁾

단의는 단령 형태이며 紅羅로 만드는데, 앞이 짧고 뒤가 길며, 좌우 모와 소매끝에는 綠羅, 白絹를 단다. 裳은 紅羅로 만드는데, 바깥에는 金花紋을 금박한 紅羅, 綠羅의 流蘇를 드리우고, 그 상단에는 綠羅를 잇댄다. 허리와 허리끈은 紅羅로 만든다. 抹裙은 홍초로 만든다. 대는 紅羅로 만들고, 금화문을 박는다.<表 2>

2) 乙卯進饌儀軌(정조19년, 1795)

을묘진찬의례의 服飾圖²¹⁾에 의하면 을묘년 奉壽堂進饌의 연화대무동기는 蛤笠을 쓰고 紅丹衣에 紅絹襪裙을 입고 金花羅帶를 띠고 流蘇로 장식한다. <表 2> 위 복식도의 내용은 樂學軌範이후 을묘진찬 이전의 甲子進宴儀軌(영조20, 1744) 동기복식 기록과 유사하다.²²⁾ 甲子進宴의 기록에 의하면 童妓는 草綠雲紋紗와 白熟絹로 兩武와 袖末을 댄 紅羅衣를 착용하고 紅絹襪裙과 紅羅裳을 입었으며, 表는 藍絹, 裏는 紅絹로 싸고 黃紅薔薇를 꽃고 金鈴을 매달은 蛤笠을 쓰고 紅段鞋를 신고 금박을 한 紅羅帶를 띠었다. 이러한 甲子年 기록은 위에서 살펴본 樂學軌範의 蓮花臺服飾 기록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서, 이 두 문헌의 기록이 보여주는 유사성은 그 사이에 존재하는 상당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연화대무정재복식이 을묘진찬까지는 樂學軌範의 範例를 충실히 따라 제작, 착용되었음을 시사하여주고 있다.

3) 己丑進饌儀軌(순조29년, 1829)

기축진찬의례의 연화대무복식은 乙卯進饌까지의 前單後長曲領의 紅丹衣에 상당한 변화가 있어 領形이 直領으로 바뀐 뿐 아니라 색도 홍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어 草綠丹衣가 된다. 蛤笠을 쓰고 紅絹襪裙과 紅羅裳을 입고 金花紅羅帶를 띠고 白汗衫을 매고 眞紅緞鞋를 신는다.<表 2>

기축년 복식도의 내용은 기록만 남아 있는 丁丑年(1877)의 기록과 동일하다. 丁丑年 蓮花臺舞복식新製造의 내용에 따르면 丹衣는 草綠生絹를 사용

하고 袖口色同에는 紅生絹를 쓰며, 裳에는 紅生絹와 草綠生絹를, 垂纓은 紅生絹와 草綠生絹를 사용하며, 腰纓에는 白生絹를 쓴다. 金花紋에는 金箔을 대어 사용한다²³⁾.

4) 丁亥進儀儀軌(고종24년, 1887)

정해진찬의례의 연화대무 동기는 蛤笠을 쓰고 直領草綠丹衣, 紅絹襪裙, 紅絹裳을 입었다.<表 2> 정해진찬의례의 새로 제작된 연화대무복식에 대한 기록에 의하면²⁴⁾. 丹衣의 外拱에는 草綠生絹를, 內拱에는 紅生絹를 사용하고, 領에는 紅生絹를, 袖口色同에는 紅生絹와 白生絹를 쓴다. 裳과 垂纓에는 紅生絹와 草綠生絹를 함께 쓰며 腰纓에는 紅生絹를 쓴다. 襪裙은 紅生絹를, 腰纓에는 白生絹를 사용하였다. 繡帶는 紅貢緞을 쓰고 金箔을 붙인다.

5) 壬辰進儀儀軌(고종29년, 1892)

임진진찬의례에는 丁亥進儀까지의 연화대무 동기복식과는 매우 상이한 服飾圖가 수록되어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頭飾에서 나타난다.²⁵⁾ 두식은 합립에서 연화관으로 명칭과 형태가 모두 변화하는데 蓮花冠二件을 새로 제작한 기록에 의하면 丹衣는 外拱에 草綠花紋甲紗를, 內拱에 黃生絹를 쓰며 領에는 紅花紋甲紗를 쓰고 左右挾과 袖口色同에는 紅花紋甲紗·白花紋甲紗를 사용한다. 裳에는 紅花紋甲紗를 쓰고 上端에는 草綠花紋甲紗를 대고 垂纓에는 紅花紋甲紗와 草綠花紋甲紗를 쓴다. 腰纓에는 紅花紋甲紗를 쓰고 金花紋에는 金箔을 대어 제작한다. 襪裙에는 紅禾袖를 쓰고 腰纓에는 白禾袖를 사용하며 繡帶와 纓子, 유소는 紅貢緞을 사용하였다.

6) 壬寅進宴儀軌(광 6년, 1902)

임인진찬의례의 연화대무 동기는 蓮花冠을 쓰고 團領草綠丹衣를 입고 紅絹襪裙에 紅羅裳을 입고 金花紅羅帶를 띠며 玉色汗衫을 하고 眞紅緞鞋를 신는다. 壬寅進宴의 蓮花臺舞童妓服飾 新製造²⁶⁾는 다음과 같다. 丹衣의 外拱으로 草綠生絹를, 內拱으로 紅生絹를 사용하고 領에 紅生絹를, 袖口色同에 紅生絹와 白生絹를 대었으며 裳에 紅生絹와 草綠

生絹를 사용하였다. 垂纓에는 紅生絹와 草綠生絹를 쓰고 腰纓에는 紅生絹를, 襪裙에는 紅生絹를 사용하였다. 繡帶는 紅貢緞을 사용하였으며, 花簪·繡鞋·蓮花冠을 제작하였다.

IV. 蓮花臺舞 童妓服飾 分析

蓮花臺舞 童妓의 복식은 西域樣式에 속하는 복식으로 형태가 시기에 따라 변하고 있으나, 團領에 窄袖衣 형태가 가장 빈번히 보이고 있다. 團領衣는 오랜 기간동안 서역각지의 복식으로 착용되어 왔으며 6세기경 단단위릭의 출토품이나²⁷⁾ <圖 2>와 같은 敦煌의 벽화에서도 그 예가 관찰 된다. 또한 멀게는 페르시아까지 그 착용의 예를 찾아 볼 수 있으며²⁸⁾ 이에 대하여는 다수의 선행 논문에서 이미 연구된 바이다.²⁹⁾



<圖 2> 장의조 출행도의 무용대
(돈황석굴156호, 송)

1. 丹衣

조선 초기 丹衣는 團領에 窄袖이고 前單後長形이다. 착용상태를 전면에서 보았을 때는 긴 저고리

길이로 보이거나 앞자락을 걷어올린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짧은 상태로 착용한 단령형 상의는 隨·唐代에 걸쳐 벽화와 유물을 통해 빈번히 관찰된다.³⁰⁾ 수대에 조성된 돈황벽화 390굴의 器樂供養人 중 舞蹈女人의 복식과<圖 3>, 晚唐時期에 조성된 석굴156호 북벽 장의조와 송국부인 출행도에 등장하는 무희 역시 같은 유형의 상의를 착용하고 있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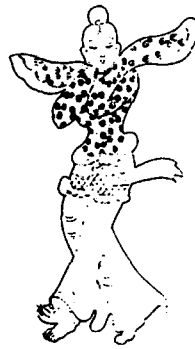
<圖 3> 무도여인
(돈황석굴390호, 수)

이러한 단령형 상의는 대부분 窄袖이고 長袖의 형태를 보이며 舞姬服으로 출현하고 있다. 이렇게 단령의 窄袖衫襦위에 장군을 입는 것은 隨代에서 初唐까지 유행하였다³²⁾. 그러나 이러한 단령형 상의 외에 실제로 수, 당대에 이르러 단령 착용의 男裝女人들에 대한 기록이 빈번히 보이고 있는데, <圖 4>와 같이 주로 藝人服裝에서 보이며 또한 童女들이 團領을 착용하고 있다.³³⁾<圖 5> 이러한 풍속은 수대에 시작되어, 성당과 만당 때에 성행하고, 오대에 까지 이른다.³⁴⁾<圖 6>

문헌에 의한 연화대무 동기 단의의 형태는 대략 세가지로 나타난다. 樂學軌範과 甲子進宴, 乙卯進饌까지는 목둘레가 좁고 前單後長의 團領形 丹衣이며, 己丑進饌과 丁亥進饌까지는 앞 뒤 길이가 같고 직령깃으로 바뀐 直領形 丹衣이고 그 이후 壬辰進饌, 辛丑進饌 및 壬人進宴에는 목둘레가 넓은 후

기 團領形 丹衣로 나타난다.

樂學軌範 연화대무복식의 丹衣는 뒷길이가 2척5촌이고 앞길이가 1척2촌으로 되어있어, 앞길의 길이가 뒷길의 길이의 반이 되지 않으며 團領이다. 儀軌記錄에 의하면 團領形 丹衣에 소용되는 옷감의 양과 直領形 丹衣에 소용되는 옷감의 양이 상이하다. 甲子進宴의 동기가 착용한 丹衣는 紅羅11척5푼을 사용하고 있다. 丁亥進饌의 直領形 丹衣에는 表에 草綠生絹 4척5촌, 裏에 紅生絹 4척5촌이 사용되어 직령형 일 때 보다 단령형 일 때 옷감이 더 많이 소용되었다.



<圖 4> 外道天女
(돈황석굴196호, 만당)



<圖 5> 女 藝人服飾
(中國古代服飾研究, 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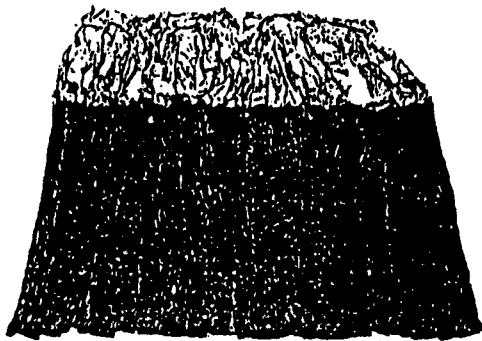


<圖 6> 男裝童女
(中國古代服飾史, 宋)

2. 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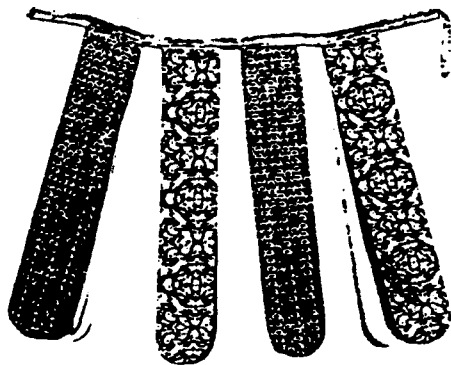
연화대무 동기복식의 裳은 시기에 따라 세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樂學軌範 이후 乙卯進饌 까지

는 동기복식의 가장 古拙한 형태가 나타나는 시기로서 裳 역시 그러하다. 허리 밑 3촌5푼 되는 지점까지는 녹색 羅로 그 밑1척4촌4푼의 길이는 홍색 羅로 따로이 주름잡아 이어 붙이며 여기에 길이1척4촌에 넓이 2촌 되는 홍·록 垂纓³⁵⁾ 각각 3개를 끼워 박는 것으로 일종의 티어드스커트 형이다³⁶⁾. 정창원에 <褐色縑單裳>과 <白橡繩袷裳> 두점의 유사한 형식의 유물이 남아있어 그 제도를 짐작케 한다³⁷⁾. 특히 褐色縑單裳은 상단의 좁은폭에 이색의 옷감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연화대무복식의 상과 매우 유사하다.<圖 7>



<圖 7> 褐色縑單裳(奈良朝服飾の研究)

己丑進饌 에서부터 丁亥進饌까지는 주름이 없고 전과 후를 분리시킨 분리형으로 변한다. 허리말기에 상과 垂纓을 함께 끼워 박은 것으로 주름이 없는 대신 상의 전후를 분리한 것이다³⁸⁾. 壬辰進饌부



<圖 8> 腰褭(奈良朝服飾の研究)

터 壬寅進饌까지는 裳과 垂纓을 함께 허리에 끼워 박으며 주름도 있는 형태인데 이때의 垂纓은 짧고 좁게 변한다³⁹⁾. 이 세가지 형태의 상에 공통으로 보이는 것은 垂纓이다. 정창원 유물 중 <腰褭>이 이와 유사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⁴⁰⁾. 전면에서 보기에 허리끈에 4개의 垂纓형태가 일정한 간격으로 달려있는 것이다.<圖 8>

3. 蛤笠

연화대무의 기원이 되는 柘枝舞의 頭飾은 구슬을 꿰어 수놓아 만들고 尖을 걸으로 말아 올려서 만든 주옥자주권첨허모로 금색방울이 달린 모자이다⁴¹⁾. 『樂府』 『柘枝詞』에 의하면 “女童 들을 써 모자에 금색 방울을 달게한다. …두개의 연꽃가운데 숨기웠다가 연꽃이 벌어진 후 나타나 마주보고 춤을 춘다”⁴²⁾ 하였는데 이 역시 蓮花臺舞 童妓의 蛤笠이 도드라진 금박장식을 한 화려한 두식으로 金鈴 및 落纓을 테의 왼쪽, 오른쪽에 단다⁴³⁾는 기록과 일치하며, 자지무 무인 복장으로 추측되는 <圖 10>에서 두식의 낙영이 나부기는 모습이 관찰된다.

의례에 기록되어 있는 蓮花臺舞 童妓의 頭飾은 蛤笠과 蓮花冠이다. 樂學軌範 기록의 연화대무 童妓 蛤笠은 藍綃로 만드는데 尖을 걸으로 말아 올린 자지무의 두식처럼 변아를 紅綃로 산다. 을묘진찬의 圖寫를 통해 합립의 초기 형태를 알 수 있는데, 낙영이 달려있고笠의 좌우에 금령이 달려있으며 황홍 장미화와 流蘇 및 結紳을 갖추며, 이러한 형식의 기본적 틀은 乙卯進饌, 己丑進饌, 丁亥進饌까지 보이고 있다. 다만 己丑進饌부터 이미 변화가 관찰되는데 화통 위로 떠있던 輪矢가 모정으로 내려앉고 황홍장미의 형태가 커졌으며 蛤笠의 도투락 첩금의 형태가 크고 정교하여졌다.<表 2> 합립이 연화관으로 바뀐 것은 壬辰進饌부터 壬寅進饌까지이다. 丁亥進饌까지 보이던 蛤笠이 蓮花冠으로 변화한 것이며 피지않은 연꽃 봉우리의 형태를 하고 있다.

4. 襪裙

말군은 치마처럼 뒤가 트이고 치마와 같은 형식의 허리 여밈을 가지며, 부리로 내려오면서 바지형태로 재봉하여 부리에 주름을 잡아 단을 댄 바지로, 치마의 허리와 바지의 부리를 가진 복식이다. 그 刑制가 유사한 당대의 유물을 통하여 그 세부형태를 추측 할 수 있다.⁴⁴⁾ <圖 9> 말군의 형태는 의술 어깨끈이 달려있는 樂學軌範을 제외하고 모두 어깨끈이 없이 허리끈만 있는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圖 9> 襪裙의 遺物
(中國古代服飾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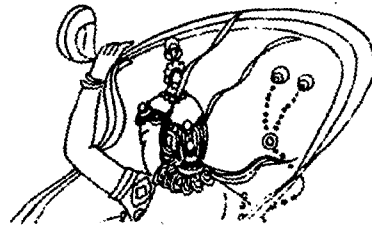


<圖 10> 西岸碑林 興福寺碑

5. 流蘇와 結紳

유소는 樂學軌範 및 進宴儀軌에 의하면 蛤笠의

부속으로 되어 있다. 척9촌 길이의 홍초로 만든 끈에 각각 넓이 3푼 길이 2척2촌되는 紅色羅緞 8가닥을 합해 붙인 여러 가닥의 장식 끈이다. 선화하며 춤을 출 때 합립 밑으로 퍼지게 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끈은 서역무용의 주된 장식요소이다. 돈황벽화 중 초당시대 조성된 막고굴 舞蹈畫에서도 이러한 끈장식을 볼 수 있다⁴⁵⁾ <圖 11>. 결신은 폭 1촌8푼, 길이 1척1촌 되는 홍초에 가득히 금박을 넣은 장식으로 끈을 달아 모두 4개를 만드는데 樂學軌範과 갑자진연의례 까지 기록되어 있다⁴⁶⁾



<圖 11> 舞蹈壁畫 部分
(돈황석굴220호, 初唐)

6. 帶

갑자진연의 기록에 의하면 羅帶는 홍라 혹은 홍초로 제작하며 금박으로 장식하였고 여기는 끈으로는 홍초로 만든 낙영을 두 가닥 帶 허리 안에 달았다⁴⁷⁾. 정해진찬과 임진진찬 및 임인진연에는 繡帶로 변하고 있으며 그 폭이 4촌으로 대단히 넓어지고 있다. 또한 수놓은 위에 금박을 더하고 있어 정해진찬 이후 대가 화려해지고 있다. 화려한 수대에 대한 예는 정창원에 남아있는 刺繡羅帶를 통하여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⁴⁸⁾.

V. 蓮花臺舞 童妓服飾 제작

본고에서 제작하고자하는 蓮花臺舞 동기복식은 蓮花臺舞 實演에서의 착장을 위한 것이다. 제작의 기준으로한 자료는 樂學軌範 및 園行乙卯整理儀軌로서, 樂學軌範에 수록된 형태가 조선 중·후기 정

조음묘년의 진찬까지의 연화대무복식의 형태로 충실히 유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부치수에서는 樂學軌範 및 갑자, 을묘진찬의 치수가 당시 착용인물의 신체크기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착용할 무용인의 신체에 맞도록 현대의 착장비율에 맞추어 재해석 하여 문헌자료의 1尺을 실제제작에서 약 45cm로 기준 하였다. 이는 당시에 통용되었을 仁祖12년(1634)의 자료에 의한 布帛尺인 30.3cm⁴⁹⁾가 현대인 신장의 착장비율에 적합치 않기 때문이다. 소재는 운문사를 기록대로 사용하였다. 연화대무 동기복식은 무용복 이므로 복원된 각품목을 움직이는 신체에 착용토록 하였으며 그 모습은 <圖 1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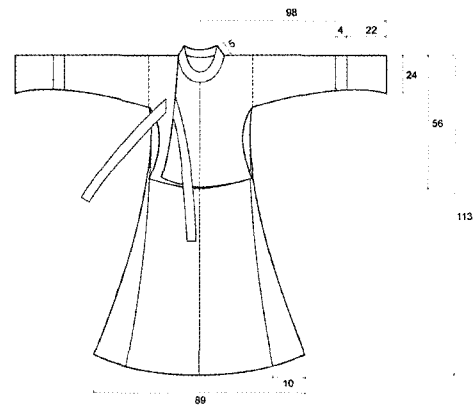


<圖 12> 연화대무 동기복식 복원착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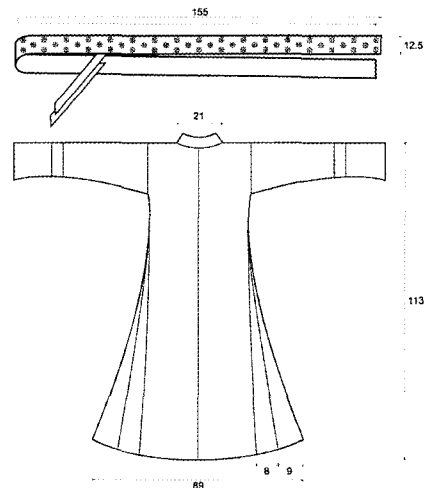
1. 丹衣의 제작

을묘진찬의 복식도를 기초로 하고 樂學軌範과 갑자진연의 기록을 참고로 하여 제작하였다. 단의

의 제작은 表는 홍운문사로 裏는 숙고사로 하였으며, 시접은 1.5cm를 두었다. 총장은 113cm이며 앞길이는 56cm이다. 단의의 앞길은 뒷길의 반이 채 되지 않는다. 袖末은 4cm로 초록 운문사를, 한삼은 22cm길이로 백운문사를 사용하였으며 모두 소매에 이어 붙였다. 丹衣 양옆에는 초록 운문사와 백숙고사로 武를 만들어 대었다. 단의의 깃은 전통적인 단령 제작법인 정바이어스 직선재단 - 곡선제작법으로 하였다. 領口의 겹부분 끝에는 홍운문사로 만든 매듭단추를 달았으며 여밈의 안정감을 위해 고름을 붙였다.<圖 13>



<圖 13> 蓮花臺舞童妓丹衣의 前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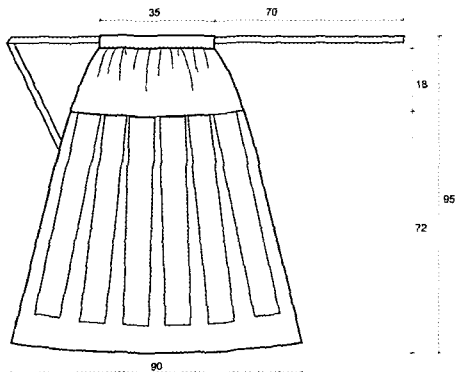


<圖 14> 蓮花臺舞丹衣의 背面 및 帶

2. 裳의 제작

을묘진찬의 복식도를 기초로 樂學軌範과 정축진찬의례의 기록을 참고로 하여 제작하였으며 제작 방법은 정창원의 褐色縑單裳과 같은 티어드 스킷트 형식으로 하였다.<圖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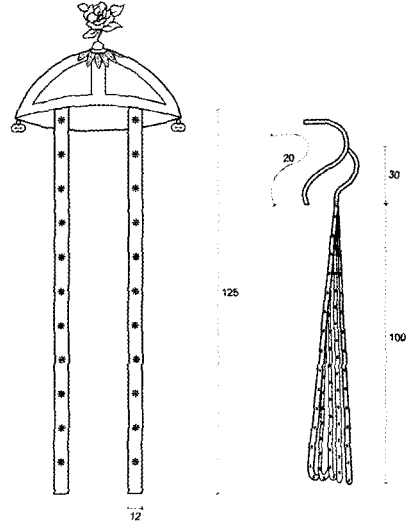
총길이는 95cm로 티어드되는 상단부분은 18cm, 하단은 72cm으로 상단부분을 주름잡아 마무리 짓게되는 要領의 넓이가5cm 이다. 상단은초록운문사 반골 60cm, 하단은 홍운문사 한폭 90cm로 제작하였으며, 垂纓 즉 流蘇 6片은 홍 운문사와 초록 운문사 3편씩으로 각각 長68cm, 10cm로 하였다. 垂纓에 금화문으로 금박을 하였다. 허리와 허리끈은 홍운문사로 제작하였다.<圖 15>



<圖 15> 蓮花臺舞童妓의 表裳

3. 蛤笠의 제작

을묘진찬의 복식도를 기초로 하고 樂學軌範과 갑자진연의 기록을 참고로 하여 제작하였다.<圖 12>합립의 골격은 가는 대를 엮어서 한지를 발라 만들었으며, 겉은 藍明紬 한폭40cm로 싸고 頂子 및 4면의 양과 변이는 紅明紬 한폭 50cm를 사용하였으며 그 위에 금박을 하였다. 묶는 纓子는 홍향라를 사용하고 落纓 2개 역시 홍향라로 만들었으며 여기에 금박을 찍었고 금령1쌍을 달았다. 황홍장미에는 唐雁羽와 黃蜜, 貼傘, 어교가 사용되었다.<圖 16>



<圖 16> 蓮花臺舞童妓의 蛤笠, 流蘇

4. 流蘇의 제작

을묘진찬의 복식도를 기초로 하고 樂學軌範과 갑자진연의 기록을 참고로 하여 제작하였다. 首沙只 즉 流蘇의 8편의 각편 길이는 100cm이며, 홍향라를 사용하여 모두 8가닥을 만들어 流蘇 각편의 전후에 화문으로 금박 하였다. 이 8편을 함께 붙여 한가닥에 모으는데 이는 길이30cm 넓이가 2.5cm이다.<圖 16>

5. 帶의 제작

을묘진찬의 복식도를 기초로 하고 갑자진연의 기록을 참고로 하여 제작하였다. 대는 홍숙고사 길이가 155cm, 넓이가12.5cm 되도록 제작하였다. 대의 넓이가 넓으므로 허리둘레 조금 못되게 허리를 묶을 길이25cm, 넓이 2.5cm 되는 끈을 왼편, 오른편에 각각 2개씩 달아 착용시 안정감을 주도록 하였다.<圖 14>

VI. 결 론

연화대무 동기복식의 변천에 대하여 고찰한 결과 세 번에 걸쳐 주로 두식과 단의 및 상에서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첫 번째 시기는 樂學軌範에서부터 乙卯進儀까지로서 이 시기에는 황홍장미를 둘러싼 輪矢가 높이 장식된 합립을 썼다. 丹衣는 홍색의 길에 백색의 단령깃으로 구성된 앞길이가 짧은 단령형 단의를 입었다. 裳은 주름과 금박이 적히고 垂纓이 덧대어진 티어드 스커트 형태가 착용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기축진찬부터 정해진찬까지이며 전 시기와 같은 형태의 합립을 썼는데, 花紋金箔이 좀 더 크고 뚜렷하여졌다. 단의는 전시기의 홍색의 단령형에서 바뀌어 녹색의 직령형이 되었다. 裳은 주름이 없이 전후면이 분리되고 허리에서 바로 垂纓이 덧대어진 형태가 착용되었다. 세 번째 시기는 임진진찬부터 임인진연까지이며 이 시기에는 합립이 연화관으로 바뀌었다. 단의는 직령형에서 다시 단령형으로 바뀌었는데, 목둘레가 넓어지고 앞 길이가 길어졌다. 裳은 주름이 있고 허리에서 바로 짧은 垂纓이 덧대어진 형태가 착용되었다.

다음으로 蓮花臺舞 동기복식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문헌 및 유물과 관련자료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연화대무는 내용과 구성에서 유사한 형식을 보이는 서역으로부터 유래한 柘枝舞에서 비롯된 것이다. 柘枝舞와 蓮花臺舞는 동일히 연꽃 속에서 나온 두 동녀가 추는 춤으로 주로 도약하고 선회하는 동작을 보인다. 단령형 단의의 착용은 당대 유행하던 동녀나 기녀의 女着男裝 즉 단령착용의 영향이다. 단의 앞길의 길이가 짧은 것은 춤의 내용상 도약하고 선회하는 움직임으로 인한 활동성확보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 생각된다.

연화대무 동기복식의 복원 제작은 정조대의 園行乙卯整理儀軌에 나타나는 연화대무 동기복식을 구성하였다. 을묘년의 복식도는 연화대무 동기복식 초기의 형태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樂學軌範 및 甲子進宴儀軌의 기록과 일치하는 채색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복원 대상으로 정하였

고, 품목에 따라 부족한 자료는 타 의뢰의 기록과 樂學軌範의 기록을 참고하여 복원 제작하였다.

참고문헌

- 1) 李柱媛, 李朝後期 宮中 女舞服에 관한 研究, 「服飾」제 6호, 1982.
백영자, 樂學軌範소재 복식의 변천, 한국음악연구 제 21집, 1992.
남후선, “궁중무용복식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지, 1998년 11월, 41호.
- 2) 李如星, 「朝鮮服飾考」, (白楊堂, 1967), pp.8~14
- 3) 張師勛, 「韓國傳統舞蹈研究」(一志社, 1981), pp.121~122
자지(柘枝)는 서역의 한나라인 석국(石國: Choj)의 音譯으로 생각된다.
- 4) 석국(石國)은 한때 소그디아나와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던 타슈켄트의 명칭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는 BC 1~2세기에 이미 중국에서 석국(石國)으로 불리웠다. 이후 불교와 조로아스터교의 영향력아래 놓여있다가 7~8세기부터 투르크계 문화와 이슬람교를 받아들였으며, 한때 박트리아, 소그디아나의 일부였고, BC 6세기에는 페르시아의 영토였다.
- 5) 劉頌玉, 「朝鮮王朝 宮中儀軌服飾」, (서울 修學社, 1991), p.415.
蓮花臺舞는 大曲 柘枝舞의 일부로 唐代에 서역에서 수입되어 고려에 이른 것으로 생각된다.
- 6) 「樂學軌範」, 卷3, 高麗史樂志唐樂呈才 蓮花臺
- 7) 「樂學軌範」太白山書庫影印本, 平壤·國立出版社, 1956, 卷8
- 8) 王克芬, 「中國舞蹈史」, 高승길 譯, (교보문고, 1991), pp.97~98.
당대의 무악은 정관 11년에서 16년(637~642) 사이에 수대의 9부악을 증편시켜 燕樂, 清商樂, 西涼樂, 天竺樂, 高麗樂, 龜茲樂, 安國樂, 疏勒樂, 康國樂, 高昌樂 등의 10부악으로 만들었다. 燕樂과 清商樂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외국무악을 계승한 것이다. 이들은 원래의 민족적 특색, 지방적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대부분 국명이나 지명을 樂府의 명칭으로 삼았다.
- 9) 王克芬, 앞글, pp.97~98.
당대의 무악은 정관 11년에서 16년(637~642) 사이에 수대의 9부악을 증편시켜 燕樂, 清商樂, 西涼樂, 天竺樂, 高麗樂, 龜茲樂, 安國樂, 疏勒樂, 康國樂, 高昌樂 등의 10부악으로 만들었다. 燕樂과 清商樂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외국무악을 계승한 것이다. 이들은 원

래의 민족적 특색, 지방적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대부분 국명이나 지명을 樂府의 명칭으로 삼았다.

- 10) 高棅·李維, 「中西舞蹈比較研究」, (中央文物供應社, 1983), pp.378~379.
- 11) 王克芬, 前掲書, p.110.
- 12) 「高麗史」卷71, 樂志: 蓮花臺 口號는 “무늬 비단자리 광채나고... 中略, 蓮송이에서 변화해 나온 아름답기도 한 자태, 妙致있는 춤과 어여쁜 노래 보기도쁜 재주입니다.”라고 한다.
- 13) 「園行乙卯整理儀軌」首卷, 呈才圖, 蓮花臺.
- 14) 「樂學軌範」, 卷8, 鄉樂呈才樂器圖說.
- 15) 王克芬, 前掲書, p.110
- 16) 上掲書.
- 17) 「樂府」柘枝詞에 “ 柘轉有聲, 其來也, 花坼而後見, 對舞相佔, 實舞中雅妙者也.”라 하여 회전하며 마주 대하여 추는 춤에 관한 언급이 있다. 「高麗史」와 「樂學軌範」에 “혹은 낮을 혹은 등을 마주하고 도약무를 춘다” 하여 연화대무도 회전하는 춤임을 알 수 있다.
- 18) 「樂學軌範」太白山書庫影印本, 平壤·國立出版社, 1956. 卷4 시용당악장제 의식의 도표와절차
- 19) 「樂學軌範」, 卷8, 蓮花臺服飾圖說.- 蛤笠以細竹網造, 塗紙, 外裹藍綃, 紅綃頂子, 頂子下, 以紅藍綃, 載成花筒付之. 四面梁及邊兒用紅綃付之. 並印金花紋內途紅綃左右懸金鈴, 內懸紅綃纓子, 亦印金花紋.- 黃紅薔薇, 以白唐鴈翼羽, 前染綠蠶爲燐如輪矢, 並內屈, 上施羅花, 一黃一紅, 流蘇及結紳, 以紅羅爲之, 印金花紋, 纓用紅綃.- 丹衣用紅羅, 前短後長, 兩袂及袖端, 補以綠羅白綃.- 裳以紅羅爲之, 外垂紅綠羅流蘇, 印金花紋, 上端以綠羅連補, 腰及纓, 用紅綃.- 襪裙, 以紅綃爲之.- 帶以紅羅爲之, 印金花紋.
- 20) 「樂學軌範」太白山書庫影印本, 前掲書, 卷8 련화대복식
- 21) 「園行乙卯整理儀軌」, 卷首 服飾圖, 童妓服飾.
- 22) 「甲子進宴儀軌」卷2, 童妓服色新造秩.
紅廣紗二十三尺, 袖末次草綠雲紋紗半骨長一尺六寸, 汗衫次白熟綃半骨長一尺七寸, 武次草綠雲 紗半骨一尺六寸, 白熟綃半骨一尺六寸, 段次多紅廣紗半骨一尺五寸紅綃帶二件新造所入, 紅綃長七尺一寸廣三寸五分二片金箔四貼紅羅裳二件仍用紅羅首紗只十六介新造所入紅充羅四尺四寸, 道吐落金箔三貼紅綃末裙新造所入紅綃二十一尺, 腰結次白輕光紬二尺四寸, 紅羅結紳八介新造所入, 紅充羅長六寸五分廣四寸五分八片蛤笠二部修補所入, 藍綃一尺六寸, 紅綃二尺, 炭一斗, 道吐落金箔四, 纓子紅充羅長一尺廣一寸一片, 曲之付金箔四片, 金鈴二雙仍用, 魚膠一張, 落纓四介新造所入, 紅綃五尺四寸, 道吐落次貼金二貼八張黃紅薔薇花二朵修補所入, 唐雁羽五十介, 黃蠶二兩, 紅綃長六寸廣二寸一尾貼金五張半, 魚膠半張細銅系一兩, 尾竹一郎, 唐銅碌五錢, 貼銀三張, 五色具系各五分, 鑰織一錢五分紅段鞋二部新造所入, 紅段長七寸廣五分二尾, 內拱白馬皮半張及半半張, 昌二部

, 白具系六錢勒次白具系二錢菊花童次紅具系五分, 草綠具系五分紙金半半張, 紅段長廣各五分四片黃蠶五錢, 縞布八尺生苧二兩, 跟次紫忝皮半半張具末二合, 具粉二錢阿膠一錢, 炭一斗

- 23) 「丁丑進饌儀軌」卷3, 樂器風物條
丹衣二件次 草綠生綃十八尺, 袖口色同次 紅生綃兩尺四寸 內下, 裳二件次 紅生綃四尺, 草綠生綃 半骨長兩尺五寸, 垂纓次 紅生綃六片各長一尺五寸廣四寸 草綠生綃六片各長兩尺四寸 廣四寸, 腰纓次 白生綃兩尺四寸 內下, 金花紋次 金箔一束二貼 實用, 蛤笠二件次 金花紋次 金箔七貼金糊一錢 實用
- 24) 「丁亥進饌儀軌」, 樂器風物 附呈才儀物 - 本所新備及修補.
丹衣 二件次 外拱 草綠生綃 九尺, 內拱 紅生綃 九尺, 領次 紅生綃 一尺 八寸, 袖口色同次 紅生綃一尺 寸, 白生綃 一尺 八寸 以上 實用, 裳 二件次 紅生綃 四尺五寸, 草綠生綃 一尺 九寸, 垂纓次 紅生綃, 草綠生綃 各 六片 每片 長一尺 五分, 廣四寸, 腰纓次 紅生綃 三尺實用, 襪裙 二件次 紅生綃 二十尺, 腰纓次 白生綃 三尺 五寸 以上 實用 繡帶 二件次 紅貢緞 二片, 各長 六尺, 廣四寸, 金箔 一束 二貼 實用, 花簪 二箇·繡鞋 二部·蛤笠 二立 以上實用, 裏次 黃木 十兩尺 實用
- 25) 「壬辰進饌儀軌」樂器風物 附呈才儀物 - 樂院新造及修補.
蓮花冠二件, 接只二件 銀蛙簪具, 唐只四件次 紫的禾紬一尺五寸, 花冠二件·首拱花四枝·銀鍍金花簪二箇簪 四件·紅貢緞繡鞋二部 以上 實用, 丹衣二件次 外拱 草綠花紋甲紗, 內拱 黃生綃各九尺, 領次 紅花紋甲紗 兩尺, 左右挾及袖口色同次 紅花紋甲紗·白花紋甲紗 各兩尺三寸 實用 裳二件次 紅花紋甲紗四尺五寸, 上端次 草綠花紋甲紗半骨兩尺二寸五分, 垂纓次 紅花紋甲紗草綠花紋甲紗各六片長一尺五寸 廣四寸, 腰纓次 紅花紋甲紗三尺, 金花紋次 金箔二束 實用, 襪裙二件次 紅禾紬十六尺, 腰纓次 白禾紬三尺一寸 實用, 繡帶 二件次 紅貢緞二片各長四尺 廣四寸, 纓子次 紅貢緞 八片各長五寸 廣五分, 金花紋次 金箔六貼 實用, 流蘇 二件次 每件紅貢緞八條通長十六尺八寸 每條長兩尺一寸廣五分, 腰纓次 紅禾紬一尺, 金花紋次 金箔一束 六貼 實用
- 26) 「壬寅進宴儀軌」卷之三 樂器風物條 附呈才儀物 - 本廳新備及修補.
丹衣二件實用 外拱 草綠生綃九尺, 內拱 紅生綃九尺, 領次 紅生綃一尺八寸, 袖口色同次 紅生綃一尺八寸, 白生綃一尺八寸, 裳二件次 紅生綃四尺五寸, 草綠生綃 一尺九寸, 垂纓次 紅生綃草綠生綃各六片每片長一尺 五寸廣四寸, 腰纓次 紅生綃三尺, 襪裙二件次 紅生綃 二十尺, 腰纓次 白生綃三尺五寸, 繡帶二件次 紅貢緞 二片各長六尺廣四寸, 金箔一束二貼, 花簪二箇·繡鞋

- 二部·蓮花冠二件 以上 賀用, 褰次 黃木十兩尺
- 27) 「スタイン・コレクション, ロデリック・ウィットフィールド」(東京: 講談社), p.314.
호탄벽화의 대표작의 하나인 版繪騎乘 人物圖의 주인공의 복장은 전형적인 團領의 형태이다. 깃은 좁게 재단되어 있고 窄袖衣이다.
- 28) 後一藤茂樹·相賀徹夫, 「原色世界の美術」, 小學館 東京, 昭和45. p.228
- 29) 任明美, 「중국의 고대 복식연구1」, (경춘사, 1988). p.35.
김미자, 페르시아 복식에 관한 연구 「의류학의 이론과 방법」, (일신사, 1996). pp.546~561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丹青圖書有限公司, 中華75年, p.333
- 30)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香港:商務印書館香港分館, 1981) p.156.
- 31) Roderick Whitfield, DUNHUANG Caves of the singing sands, (London: Textile & Art Publications, 1995). p.175.
- 32) 戴 爭, 「中國古代服飾簡史」, (臺北: 南天書局有限公司, 民國81). p.123
- 33) 沈從文, 前揭書, p.311.
- 34) 秦孝儀, 吳哲夫, 「中華五天天文物集刊 服飾編下」中華五天天文物集刊編輯委員會 中華75年.
- 35) 상에 달리는 끈 6片으로, 流蘇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전체 품목에 명시된 유소와는 다른것이다.
- 36) 「樂學軌範」, 卷8, 蓮花臺服飾圖說.
- 37) 關根眞隆, 「奈良朝服飾の研究」(東京: 吉川弘文館刊). pp.41~42.
- 38) 「丁亥進饗儀軌」, 卷首, 服飾圖.
- 39) 「壬寅進宴儀軌」, 卷首, 服飾圖.
- 40) 關根眞隆, 前揭書. pp.52~53.
- 41) 王克芬, 前揭書, p.104.
- 42) 「樂府」, 柘枝詞. “用二女童, 帽施金鈴, 卦轉有聲, 其來也, 於二連花中藏, 花坼而後見, 對舞相佔, 實舞中雅妙者也.”
- 43) 「樂學軌範」, 卷8, 蓮花臺服飾圖說.
「甲子進宴儀軌」卷2, 童妓服色新造秩. 蛤笠二部修補所入, 藍絹一尺六寸, 紅絹二尺, 炭一斗, 道吐落金箔四, 纓子紅充羅長一尺廣一寸一片, 曲之付金箔四片, 金鈴二雙.
- 44) 中國服裝史研究會編著, 「中國歷代服飾」, (上海: 學林出版社, 1994).
- 45) Roderick Whitfield, op. cit., p.87.
- 46) 「樂學軌範」, 卷8, 蓮花臺服飾圖說.
- 47) 「甲子進宴儀軌」卷2, 童妓服色秩. 紅羅帶二件, 紅絹落纓四介.
- 48) 關根眞隆, 前揭書. p.77.
- 49) 「田制詳定所遵守條畫」, 奎章閣 木版本, 卷3. 隨等異尺制 布帛尺